

“자유주의·성경비평 극복하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해야”

성수협, 18~21일 제2회 예수병사훈련소 사경회 진행

제2회 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 협회(성수협) 예수병사훈련소 사경회가 18~21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신인터 벨라24 지하 2층 성수협 강의장에서 진행 된다. 첫째 개회예배 직후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조영길 전도사(변호사·산한열매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영적 위기의 본질과 성경 수호의 절체절명 과제에 대해 역설했다.

조 전도사는 강연에서 “서구 교회가 동성애 정당화 법안과 차별금지법의 거센 물결을 막아내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근본적인 원인은 신학의 분열, 즉 성경 비평학을 여과 없이 수용한 자유주의 신학의 집투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사탄이 오늘날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 핵심적인 전략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도사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동성애 저항 운동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든 교단이 대체적으로 성경무오설을 견지해 온 역사적 맥락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전도사는 성수협 예수병사훈련소의 확고한 신앙고백과 지향점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성수협이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 구원 교리인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완전독자·유기영감 및 완전무오)에 대한 믿음 견지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경의 모든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죄 사함과 몸의 부활 및 천국의 영생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악인의 몸 부활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 천국지옥재판심판 등의 고백을 따르는 세계 보편적 참 교회의 수호와 회복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성경학교, 선교사훈련학교 등 각종 교육 훈련 기관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거짓 신학인 성경고등비평학(자유주의 신학과 신비주의적 이단 신앙, 거짓 사상이 유포·전파되는 교 육되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파와 교단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보편적 참교회의 강단과 선교지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하는 복음주의



사경회가 열리는 현장의 모습. ©노형구 기자

적 가르침과 선교가 회복되도록 돕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신학생과 평신도, 목회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을 명확히 분별하고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 예수 병사로 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비전 속에서 출범한 성수협은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와 유튜브 채널 ‘차바야’를 거쳐, 현재는 차별금지법의 비성경적 이론을 복음의 능력으로 파훼하는 ‘차이성(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한국교회의 신학적 각성과 연합 운동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훈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

교 조직신학)는 성경비평학이 가져온 신학적 오염과 그 심각한 폐해를 비판하며, 이것이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선 근본적인 영적 싸움임을 역설했다. 김병훈 교수는 강연에서 “성경비평은 단순한 해석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근본적인 세계관과 전제의 싸움”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을 무너뜨리고, 이성과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조합하려 든다”며 “이성에 따라 성경을 재조합하면 성경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위가 상실되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주의신학이 성경의 역사성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훼손하는 점을 지



조영길 전도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적했다. 김 교수는 “성경비평학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대속의 은혜를 배부신 일이 이 게 해석의 문제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 해석의 문제일 뿐인가. 이 지경에 이르 면 아까 말했던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성이 없으면 과연 우리의 부활 신앙은 헛된 것이요, 주관적 신념이자 꿈이 된다”라고 말했다. 개혁파 신학자들이 말하는 해석의 차이와 자유주의의 왜곡은 명백히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이성이나 인간의 해석이 성경보다 위에 설 수 없으며, 최종적

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에 있다”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자유 비평과 싸우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견뎌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사사기 6:12)’라는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소는 고등비평학, 유폐진화론, 자유주의 신학 등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세속적 학문에 맞서 싸울 영적 군사를 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첫날은 김선우 목사(새하늘교회 담임)가 설교한 개회예배로 문을 열었다. 이어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조영길 전도사에 이어 김병훈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김요한 목사(함께하는교회 담임), 김상한 목사(안산성광교회 담임), 김운태 교수(백석대학교 신학과)가 차례로 특강했다. 박형수 목사(그네교회)는 기도회를 인도했다.

19일 일정은 이상원 교수(총신대학교 전 신학대학원장, 기독교윤리학과)가 인도하는 아침 체플로 시작된다. 이어서 조영길 전도사의 연속 특강과 함께 다양한 국내외 신학 및 선교 현장의 전문가들이 특강 주자로 나선다. 노형구 기자

뉴욕서 ‘2027 8천만민족복음화대성회 연합성회’ 열려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들 한자리…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 위해”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2027 8천만민족복음화대성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뉴욕영안교회에서 ‘2027 8천만민족복음화대성회 뉴욕연합 성회’를 개최했다.

민족복음화운동 뉴욕지부가 주관한 성회에는 뉴욕을 비롯한 미주 각 지역 한인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한국 교회의 회복과 민족복음화, 복음통일, 세

계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주강사로는 최명우 순복음예수소망교회 목사와 나광삼 위싱턴큰무리교회 목사가 나섰다.

나광삼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미주대표회장은 “뉴욕연합성회는 단순한 지역 집회가 아니라, 2027년 8천만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미주 복음화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이라며 “세계의 중심도시인 뉴욕에서 점화된 기도와 복음의 불길 이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캐나다를 비롯한 미주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교회는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복음통일, 세계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영적 자산”이라며 “교단과 지역, 세대의 장벽을 넘어 미주 한인교회가 하나로 연합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7년 대성회의 목표인 ‘100만 영혼구원’을 위해



2027 8천만민족복음화대성회 뉴욕연합성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뉴욕본부

미주 교회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미주 각 도시에서 연합 성회와 기도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는 국내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환영사와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의 뜨거운 영적 유산을 계승해 2027년 다시 한번 민족을 깨우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가 민족복음화의 횃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2027 8천만민족복음화대성회의 분명한 목표는 100만 영혼구원”이라며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한인교회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도와 화개운동을 전개해 한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며, 민족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거룩



나광삼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뉴욕본부

한 사랑”이라고 밝혔다.

성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뉴욕 디아스포라 여성, 뉴욕 교계의 연합, 2027 8천만민족복음화를 위한 합심기도도 진행됐다. 최명우 목사는 요한복음 8장 32절 본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성회에는 나광삼 미주대표회장장과 김다니엘 전미주 사무총장을 비롯해 LA,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뉴욕, 휴스턴, 달라스, 덴버, 애틀랜타, 메릴랜드, 뉴저지,



최명우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뉴욕본부

시애틀 등 미주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이번 성회를 계기로 미주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도시별 연합기도회와 전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 본부 및 세계 각국의 한인교회와도 연대해 2027년 대성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27 8천만민족복음화대성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기념해 추진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인터뷰] LIOS Studio
김평안 대표를 만나다 >> 3면

‘신의악단’ 태향호, 기독교
팟캐스트 MC 도전 >> 24면

JESUS LOVE

마음을 전하는 단체 선물

교회 단체 상품 주문 문의

볼펜 · 선물세트 · 행사 기념품

온라인 주문 및 단체 문의

02-723-1335

www.withjesuslove.shop

UV 장우산

고급 볼펜

세라믹 텀블러

말씀 머그컵

QR로 바로 주문